



산책으로 더위 잊는 밤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열대야를 보인 지난 26일 전남대 교정을 찾은 시민들이 돛자리에 앉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전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지난해 3일에 1명꼴 산재 사망

하루 평균 15.7명 부상...직접 손실액 2007억원

올해만 2167명 부상에 51명 숨져...전국 평균 웃돌아

담양군 대전면 A벽돌제조업체는 지난 달 26일 작업 중 벽돌을 자동으로 옮기는 장치에 눌려 숨진 B씨(61) 사망 사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적발돼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5700여명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했으며 사망한 노동자도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 노동자가 2167명에 이르는가 하면, 산업 재해로 인

한 경제적 손실도 지난해 1조3000억 원 규모로 집계되는 등 산업 현장 내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5월까지 광주지역에서 2167명(광주 832명·전남 1335명)이 산업 재해로 피해를 당했고 사망한 노동자도 51명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91명 ▲건설업 58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6명 ▲

임업 88명 ▲광업 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전남에서 5722명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했으며 11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산업현장에서 하루 평균 15.7명꼴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3일마다 1명꼴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산재율은 0.56%(산업 재해자 5722명)로 전년도(0.68%·6075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산재율 0.53%)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산입해 손실액으로 볼 때 무려 2007억원

의 경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손실비의 4배 수치를 더한 간접 손실비의 경우 1조300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316억원짜리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32개 지을 수 있고, 광주·전남지역 실업자(5만4000여 명)의 93%(5만184명)를 연봉 2000만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노동청 설명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 건설현장과 화학 제조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전담 관리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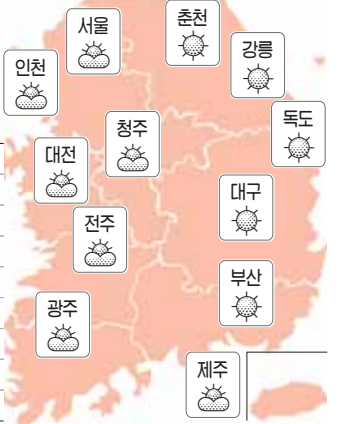
해돋이 05:38 해질 19:40  
 일출 16:38 일몰 02:19

### 한낮 '찜통더위'

북태평양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4/33	보성	구름많음	23/31
목포	구름많음	23/30	순천	구름많음	24/33
여수	구름많음	24/29	영광	구름많음	24/31
나주	구름많음	24/33	진도	구름많음	23/29
완도	구름많음	24/30	전주	구름많음	24/32
구례	구름많음	23/33	군산	구름많음	23/30
강진	구름많음	24/31	남원	구름많음	23/32
해남	구름많음	24/31	홍산도	구름많음	22/27
장성	구름많음	23/31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면바다(서)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0	04:59
	00:00	16:51
여수	06:17	00:36
	19:20	12:19

#### 주간 날씨

29(수)	30(목)	31(금)	8/1(토)	2(일)	3(월)	4(화)
☁	☁	☁	☁	☁	☁	☁
24/32	25/32	25/32	25/33	25/33	24/33	24/33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 40 (운동)
- 40 (빨래)

## 용돈 10만원 준 아내...법원 "이혼하라"

A씨는 B씨와 만난 지 7개월 만에 부부가 됐다. A씨는 매달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째 겨울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구토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하지 않고 A씨를 찾아왔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섬 관광 느는데...끊이지 않는 선착장 안전 사고

전남 시·군 항만시설 1천4백여곳 해안 추락사고 빈번

도, 1천곳 안전시설 현황 파악도 못해...대책 마련 시급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남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전남 지역 항만시설에서 5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등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4건(사망자 6명)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20분께 목포시 향동 여객선터미널에서 하선하던 이모(여·82)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승객 김모(68)씨 등 2명과 앞서가던 카렌스 승합차를 잇따라 추돌한 뒤 바다로 추락, 소나타 운전자

이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와 승객이 한꺼번에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승용차를 분리한 승·하차가 이뤄졌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달 7일 새벽 여수 진목항에서도 하모(54)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자 하씨가 숨지는 등 항만 시설 내 안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12개 시·군에 여객선 터미널과 지방어항 등 항만시설은 총 1144개로, 지난해만 799만여명이 섬 관광 등을 위해 전남의 항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해도 859만명이 전남의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만시설 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은 지난 2011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이 직접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많아 전체적인 안전 시설물 현황 파악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지방어항을 우선적으로 추락방지 시설·가orong 설치 등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한변협, 성공보수금 현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금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금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전제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리산과 섬진강을 잇는 곳

# 구례

황홀한 풍경 지리산, 생명의 줄기 섬진강  
 대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면  
 바로 여기! 구례로 오세요

구례군 대표 QR코드입니다

**구례군 구례의회**